

〈토론〉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 토론문

홍 기 돈*

성실한 토론자라면 나름대로 설정하는 하나의 방향을 가늠하면서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4·3을 소재로 한 시편들에 대한 제 공부도 짧고 그럴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저 역시 막연히 필요성만 느끼면서 해매고 있는 문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문혜원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을 통해 4·3을 소재로 한 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상처의 현재적 양상, 둘째, 해원(解冤)의 의식과 상처 아물리기, 셋째,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미래. 또한, 그러한 시의 유형화 작업 이후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내용상의 동어반복과 그에 따른 시의 획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4·3을 바라보는 시각의 평면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표된 시들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출판된 시들조차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먼저, 이번 발표문을 보면 내용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즉 시에 대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가락이라든가 리듬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문무병의 『해원굿시집』의 시들을 보면 어릴 적 주위에서 들으며 자란 제주 특유의 리듬이 느껴집니다. 그 시집의 해설을 제가 썼는데, 저 역시 그 주위에서 맴돌다가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그냥 포기한

* 중앙대학교 강사, 문학평론가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언술을 발견하게 될 때 느껴지는 어떤 부러움 같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미당의 무르익은 언어감각을 단순예정의 한다면, 그것은 남도 판소리 계면조와 조선후기 4·4조, 한말 이래의 3·4조 등의 음률에 아주 익숙한 상태이다. 그 마이너존의 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가 교과서를 통해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원인도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고은, 「미당 답론」)

둘째,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유형(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상처의 현재적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시들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나 규명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슬픔을 형상화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4·3에 대한 저의 인식이 편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제주도민의 구체적 상황이야 그저 죽이니까 죽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깊이 있는 인식이나 규명'을 붙여넣는 작업은 서사시의 차원으로의 확장되게 마련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서사시로 간다는 사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 혹은 가능성도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민병욱의 다음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서사시는 집단적 경향을 띠, 집단 전체의 소산물이다. 즉, 개인성과 귀족성은 사라지고, 집단성과 대중성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개인적 창작자와 개인적 운명이라는 주제 대신, 서사시는 집단적 창작자와 집단적 운명이라는 주제를 선택한다. 하나의 길드적 산물-정신적 연대감을 갖고 공동의 전통과 기법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시인 집단의 서사시는, 낭송의 측면에서도 집단성과 대중성을 가진다."(「근대 서사시의 형성과 실제」)이렇게 본다면 '집단적 창작자와 집단적 운명'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미래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리라 판단되는데요.

셋째,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김용해의 「한라산」에 나타나는

‘어머니’ 해석에 대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존재는 굳이 4·3을 소재로 한 시들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난리 후의 삶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반적인 상징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징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징에 좀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4·3을 겪고 그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어머니상이 일반적인 모성의 특징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첨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일반적인 상징’의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역사 속에서의 구체적 현실성”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입구에 ‘설문대 할망’이 존재할 터이며, 제주 나뭇의 신화 체계 속에서 ‘일반적 상징’을 넘어서는 특수성이 확보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덧붙이자면, 굳이 이러한 물음을 가지는 것은 제주의 독특한 신화들이 시적 상상력의 보고(寶庫)로 자리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보았습니다. 문혜원 선생님의 답변을 통해 거기에서 헤어나올 실마리를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